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일터      제목 : 교회와 일터      성경: 출애굽기  
20장8-11절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  
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  
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20:8-11)

성직자들이 일터로 내어 몰리고 있다.

구약에 느헤미야에 보면 레위인들이 십일조를 받지 못하므로 성전에  
서의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삶의 현장으로 내어 몰렸다는 이야기  
가 나온다.

10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  
기로 (느13:10)

현재 한국에 교회가 많은데 성직자들은 더 많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교회를 구하려고 하는데, 정작은 교회가 있는 성직자들도 대부분은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빚더미를 안고 있는 교회들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  
다. 이제는 예배당을 여러교회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이 되어가고 있다. (예배당 임대사업, 예식장처럼...)

전통적으로는 목회자가 목회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성  
경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순서를 따라서 봉사하였고, 자기의 순  
서가 아니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받을 갈았다.

요즘은 전직 목사였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사회에서는 주일 목사님이 보편화 되어 있다.

교회가 어려워져서 삶의 현장으로 내어 몰렸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고, 오히려 그런 분들의 삶이 더 다이나믹하면서 큰 소망에 부풀어 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목회에 전념하다보니,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나 일터에 가 보니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들은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에게 목마르고 있었다.

이제 바야흐로 일터는 거룩한 자들을 목마르게 찾고 있고, 거룩한 예배당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목마르게 찾고 있다. 이 둘이 일터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목사는 전도하려고 일터에 가는게 아니라, 사실은 일을 구원하려고 일터에 간다. 그런데 일을 구원하다 보니까, 그 일터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하게 되는 것이다.

또 목사는 요즘 뜨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적격자이다. 십계명은 교회를 위한 계명이라기 보다는 일터를 위한 계명이다.

하나님은 최초의 일꾼이시며, 여전히 지금도 일꾼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최종 결재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터로 파송하기 원하신다.

결론은 이렇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간관리를 말한다. 때는 곧 리듬이다. 일주일의 리듬을 잘 타야 한다. 리듬이 깨지면 병이 오고 고통스럽다.

시간이 거룩하다는 것은 시간을 리듬에 맞추어 구별하라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다.

거룩한 시간을 준비하라. 그래야 모든 시간이 복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오랜세월이 지나면서 안식일이 율법화되기 시작했다. 안식일이 빨간 신호등이 되었고, 안식일에 어떻게 지내라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러기 보다는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안식일에 특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한다.

옛새동안은 네 모든 일을 힘써 행할 것이라고 하셨다.

네 모든 일, 자기 자신과 가정의 모든 일(아들과 딸)과 일터(남종과 여종)와 외부의 일(객)을 포함한 모든 일을 말한다. 그것은 옛새동안 힘써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일들이 안식하는 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일 하는 날들의 질서가 잡힌다.

안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그 전에 먼저 옛새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 하셨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든일을 다 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하셨다.

안식이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일을 쉬라는 뜻이다. 한쪽은 빨간 불인데 다른 쪽은 녹색불이다. 안식일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날이기 보다는 녹색불이 켜지는 날이다. 이 날은 거룩한 일을 행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찬양예배>

주제: 리더    제목: 충성스러운 리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믿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4:2)

구할 것은 충성. 왜냐면 충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악하다는 것을 의미함.

충성이란 지향성이 있다.

하나님을 향하는 지향성.

불충한다는 것은 이 지향성이 방향을 잃었다는 뜻.